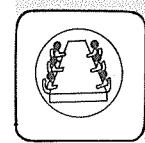


### 가전산업

지난 10월 11일 동협의회(회장 : (주)금성사 이현조 사장)는 본회 회의실에서 미래생활 가전연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디자인연구, 기술측면디자인 연구분과위를 구성하고 동위원회 산하로 운영 산·학 공동으로 운영키로 했다.

지난 11월 14일 동협의회(회장 : (주)금성사 이현조 사장)는 올림픽 유스호스텔 2층 EF룸 회의실에서 동협의회 회원사 12개사 임원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유통시장개방과 관련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한국외대 전원재 교수의 특별 강연이 있었다.

지난 10월 24일 동협의회는 전기용품전관리 연구협의회를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개최하고 전기용품 기술기준 및 전기용품의 범위 등을 심의 했다.



### HA산업

지난 10월 16일 동협의회(회장 : 삼성전자(주) 정용문 사장)는 삼성전자(주) 정보통신부문 중앙연구소에서 제2차 HA기술분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미국 CE BUS에 관한 기술동향 검토 및 토론을 벌였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동협의회는 삼성전자(주) 등 12개사 16명으로 구성, 기술요원 대일 시찰단을 파견했다. 동시찰단은 EIAJ 등 HA관련 단체 방문 및 전시회 등을 참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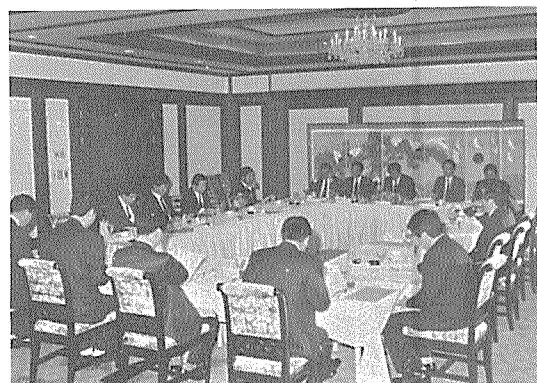


### 컴퓨터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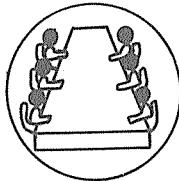
지난 10월 29일 동협의회(회장 : 삼보컴퓨터 김종길 사장)는 회원사 사장단 조찬간담회를 무역센타에서 개최했다.

이날 상공부 신국환 제2차관보, 본회 한규완 부회장, 삼성전자(주) 김영수 사장 등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 컴퓨터업계의 당면과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국산컴퓨터의 임대전문회사 설립을 지원하는 대정부건의 사항을 채택 상공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상공부 신국환 제2차관보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고 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영역 다툼을 일삼고 있는 상공부, 과기처, 체신부 등 3개 부처의 정보산업관련 정책분야의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8일 동협의회 PC주기판(머더보드) 산업분과위원회(위원장 : 태일정밀(주) 정강환 사장)는 대만산 머더 보드의 수입이 급증 국내 컴퓨터산업이 심한 타격을 입고 있어 상공부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조사신청서를 제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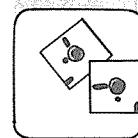
한편 동협의회는 대만산 머더보드의 수입량을 제한하고 머더보드의 HS세번을 독립시켜 이 세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10월 24일 동협의회 컴퓨터내수분과 위원회(위원장 : 삼보컴퓨터(주) 정기정 이사)는 헤스트시스템 이상윤 이사 등 회원사 6명이 참석 동분과위를 개최하고 국내 컴퓨터시장 질서 확립 등을 결의했다.

지난 10월 2일 동협의회 중대형 컴퓨터 분과 위원회(위원장 : (주)금성사 박봉기 이사)는 삼성전자(주) 임인혁 이사 등 회원사 11명이 참석 동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산컴퓨터 임대 전문회사를 설립 건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추진위원장에 동분과위 위원장을 선임했다.

지난 10월 15일 동협의회 PC수출분과위원회는 대우센터 회의실에서 (주)금성사 서영철과장 등 7명이 참석 최근 수출동향분석 및 부진대책방안을 협의했다.

었고 기능분산형 공장제어컴퓨터 등 3개 품목의 규격이 상향 조정되었다.



## 컴퓨터 특허산업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동협의회(회장 : 삼성전자(주) 김영수 사장)는 설악삼성콘도에서 금성통신(주) 동방청천부장 등 15명이 참석 외국특허대응방법 및 국내 실태 등을 협의하는 특허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10월 23일 동협의회는 (주)금성사 강성룡부장 등 10명이 참석 선우찬호 특허 변호사를 초청 IBM특허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 등 검토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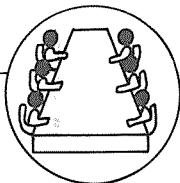


## 전자 의료기기 산업

지난 10월 28일 동협의회(회장 : 두산산업(주) 김경준 사장)는 리베라호텔 회의실에서 러시아 공화국 그레비쇼바 부총리를 초청 한·소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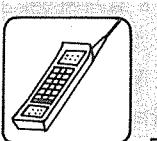


동협의회(회장 : 삼성항공산업(주) 안시환 사장)는 제조업계 경쟁력제고를 위해 지난 7월 자동화·정보화 확산의 일환으로 관세 감면대상 자동화기기 82개 품목에 대해 추가 건의하였는데 지난 10월 10일 확정고시된 바에 따르면 82개 품목중 부품자동선별기 등 35개 품목이 신규추가 되고 자동포장기 등 10개 품목이 규격 조정되었다. 한편 국내 업계에 의해 국산화된 자동화기기에 대해서는 자동화기기 생산업체 육성의 일환으로 20개 품목에 대해 삭제해 줄 것을 건의하여 이중 Chip Mount가 삭제 되



의료기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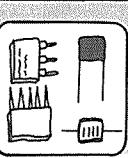
이날 (주) 메디슨 이민화 사장 두산산업(주) 한원국 상무 등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 양국의 전자 의료분야 및 관련 품목에서의 협력, 우호증진을 위한 방안이 논의 되었으며 수출 상담에 대한 구체적 사안 협의를 위해 동협의회는 11월 중순 소련을 방문할 예정이다.



## 통신산업

지난 10월 18일 동협의회(회장: 대우통신(주) 박성규 사장)는 무역센타에서 본회 한규완 부회장, 상공부 이기성 전자전기공업국장, 전자부품연구소 김정덕 소장,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고 통신산업수출증대 및 개발촉진방안을 협의했다.

지난 10월 15일 동협의회 특허분과위원회(회장: 금성통신(주) 동방청천 부장)는 팔레스호텔에서 상공부 남충우 전자정책과장, 현대전자산업(주) 유만준 이사 전자부품연구소 조위덕 교수 등이 참석 특허분과위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고 모토로라 특허클레임에 대한 업계동향 및 대책 등을 논의했다.



## 전자부품산업

지난 10월 25일 동협의회(회장: 오리온전기(주) 석진철 사장)는 본회 대회의실에서 본회 한규완 부회장, 상공부 권기성 전자부품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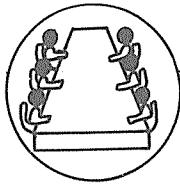
(주)금성사 전재완 부장 등 43명이 참석 국산전자부품 사용촉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 한규완 부회장은 「부품업계의 개발의욕 고취와 SET 업체에게는 국산부품 사용으로 제품의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자 동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하고 국산전자부품 사용을 활성화 시켜 전자산업을 발전시켜 나아가자고 밝혔다.



또한 상공부 권기성 전자부품과장은 현재 25개 국산부품을 선진 업계간 국산화된 부품을 SET업계에서 계속 수입하는 경우 제제를 가하는 등 적극적인 국산부품 육성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동설명회에 참가한 연사는 다음과 같다.

1. 금성전선	CONNECTOR	허덕규 과장
2. 일진전기공업	ZnO Varistor	홍순갑 이사 배철규 과장
3. 기린전자	Mylar Speaker	이기방 사장 오희주 계장
4. 한국다이오드	Diode	김재선 부장 허태부 차장
5. 등국전자공업	Capacitor	김기호 부장 송영일 전무
6. 신기산업	NTC Thermistor	김현 부장 이승룡 대리



지난 10월 22일 모터분과(위) (위원장 : 한국씨보(주) 이홍채 사장)에서는 한국씨보 이홍체 대표이사 등 6명이 참석하여 모터산업의 당면문제 및 향후 추진해야 될 공통 애로사항을 논의하였다.

지난 10월 11일 전전지 분과 위에서는 양양전지 김정수 부장 등 6명이 참석하여 수입 전전지에 대한 국내 전지 업계의 공동 대응방안 등 전전지분과(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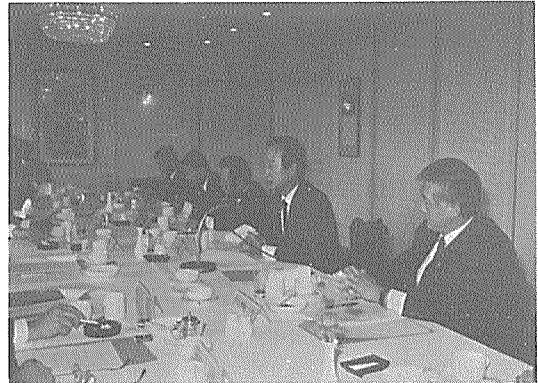
지난 10월 12(토), 21(월), 31(목) 디스플레이분과(위)에서는 수급관련업체실무 부서장간 회의를 가졌다.

지난 10월 25일 PCB분과(위)에서는 코리아씨키트 박기남 상무 등 6명이 참석하여 PCB산업의 국내외 현황 자료 작성 등 분과(위) 활성화를 위한 4개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지난 10월 29일 튜너 분과(위)에서는 삼성전기 김남수 실장 등 5명이 참석하여 튜너산업(위) 당면문제 등 공통 애로사항을 논의하였다.

지난 10월 30일 콘덴서 분과(위) (위원장 : 알미늄 코리아 박주영 사장)에서는 암미늄코리아 박주영 대표이사 등 5명이 참석하여 콘덴서 생산 및 수출입에 대한 통계자료 작성, Box포장 및 수량에 대한 표준화 방안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지난 10월 31일 센서분과(위) (위원장 : 게코전자 홍기룡 사장)에서는 게코전자 홍기룡 사



장 등 9명이 참석하여 센서산업의 당면문제 및 향후 추진해야 할 산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 11월 6일 동협의회(회장 : 오리온전기(주) 석진철 사장)는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상공부 신국환 제2차관보, 본회 한규완부회장, 동협의회 석진철회장, 동협의회 12개 분과위원장이 참석 조찬감담회를 개최했다.

상공부 신국환 제2차관보는 격려사를 통해 「전자부품산업의 수출증대를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내 전자부품산업의 애로요인 및 견의를 각 분과위원장들로 부터 의견을 정취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협의회 주요활동 및 부품산업의 수출입동향에 대한 보고에 이어 최근의 부품산업동향과 견의할 사항에 대한 참석자 토론이 이루어졌다.